

# 의정활동 부진 중진들 대거 포함...물갈이폭 30명 넘을 듯

## ■민주당 총선 공천 의원 평가 착수

개혁공천 기초 새 인물 영입 총력  
광주·전남 이광범·이정희 등 거론  
26일 설명회, 11월 5일 다면평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7개월 앞두고 민심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 공천에 시동을 걸고 있는 가운데 호남지역 공천 전선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 것인지 주목된다. 수도권 중진들에 대한 물갈이 분위기가 고조되고 전문성과 신선함을 겸비한 영입 인사들의 전략공천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호남에서도 기존의 경쟁 구도에 변화를 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지구당 위원장 등 인지도 높은 후보자들이 유리한 구도의 단순한 경선보다는 후보자 자격 심사 등을 통해 검증능을 강화하는 한편, 민심에 부응하는 영입 인사들을 조기 확정해 현장에 투입함으로써 새바람을 일으킨다는 방안이다. 실제로 내국동 특검 출신의 이광범 변호사와 한국전력 감사를 지내고 있는 이정희 변호사 등 전문성을 갖춘 일부 인사들이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영입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략공천을 통해 내리꽂기 보다는 상정성 있는 영입 인사들을 조기에 확정, 지역구에 출전시키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며 "영입 인사는 기존의 당원에서 취약한 측면에 있지만 민주당이 보장한 만큼 인지도와 신뢰도 등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호남 공천에서 역동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호남의 미래와 새로운 비전 마련을 위해서라도 현재의 공천 구도에서 변화는 필수"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성급하게 나서기보다는 호남 민심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막판까지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호남 민심의 역풍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개혁 공천 작업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좌진 대상 국회의원 최종 평가방법 설명회를 연다. 의원 평가 실무 준비를 할 보좌진에게 새로 적용되는 평가 방법과 기준을 알리는 자리로, 이날 이후 보좌진들은 설명회 내용을 토대로 자료 마련 등 평가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보좌진이 실무 준비를 완료한 이후 실제 평가는 오는 11월 시작된다. 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11월 5~14일 의원들에 대한 다면평가를 시행한다. 의원들이 무작위로 선정된 복수의 동료 의원들에 대한 평가 설문지를 작성한 이후 밀봉해 제출하는 방식이다.

이미 마무리된 중간평가와 이번 최종평가, 12월 초 이뤄지는 지역 유권자 안심번호 여론조사 등을 바탕으로 평가위는 총선 100일 전인 1월 초 평가를 완료해 현역 의원 중 '하위 20%'를 가리게 된다.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도 이맘때 설치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민주당이 지난 7월 중앙위원회에서 확정된 공천률에 따르면, 현역 의원 중 평가 하위 20%는 공천 심사와 경선에서 20% 감소 페널티를 받는다. 당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의정 활동이 활발하지 않았던 중진들이 대거 '하위 20%'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물갈이의 발판이 되는 셈이다.

이미 당 안팎에서 내년 총선 불출마자가 속속 등장하며 '물갈이론'은 확산하는 양상이다. 민주당 원로 격인 문희상 국회의장과 공천을 진두지휘할 이해찬 대표는 이미 불출마 의사를 밝혔고, 5선 중진 원혜영 의원도 불출마를 검토 중이다. 지역구 의원 중에는 경남 양산 을의 서형수 의원의 불출마 예정이며 비례대표 중에는 김성수·이철희·재운경·최운열 의원 등이 불출마할 가능성이 있다. 이미 10여명의 의원이 불출마를 확정적이며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규모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해찬 대표부터 총선 전략과 깊이 관여하는 친문 핵심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까지 불출마 명단에 포함돼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물갈이를 위한 환경은 충분히 조성된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물갈이 의원 수가 최소 30여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이용섭 광주시장이 19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노사민정협의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대표는 시민단체, 이사는 노동계 반대... '글로벌모터스' 앞날 걱정

### 박광태·박광식...둘다 자동차 비전문가 사퇴 위한 대책위 "반대 운동 지속할 것"

광주시가 19일 노사민정협의회와 주주간담회를 거쳐 20일 (주)글로벌모터스 설립 등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키로 하면서 광주형일자리 자동차공장 합작법인 설립은 늦어도 내주 중 완료돼 사업이 본격적으로 오를 전망이다.

광주시는 이날 주주간담회에서 박광태 전 시장을 초대 대표이사로, 현대자동차 부사장 출신 박광식 씨와 광주은행 부행장 출신 고병일씨를 이사로 하고, 감사 2명까지 최종 선임함으로써 법인 설립을 위한 외형은 갖췄다는 평가다.

하지만, 임원진 면면을 보면 공장부지 매입과 건설, 인제 채용, 차량 생산과 판매 등 광주형일자리

사업의 앞날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비판이 여전하다. 초대 대표이사 박 전 시장의 경우 참여자치 21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 10여 곳 대책위를 꾸려 결사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다 광주시의회 일부 의원들까지 반발하고 있어 박 전 시장이 회사 대표로서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할 지 의문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자치 21 등 지역 시민단체로 꾸려진 '박광태 대표이사 사퇴를 위한 대책위'는 박 전 시장은 재임 시절 '상품권 강'으로 대표되는 비리로 얼룩진 구시대 인물일 뿐 아니라, 2021년 하반기 자동차 생산을 위한 초기 설계와 경영의 토대를 구축할 전문성도 결여된 인물이라는 인식이 확고하다. 대책위 측은 20일로 예정된 이용섭 광주시장과 면담에서 박광태 대표이사 불거론을 재차 주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 관계자는 "박광태 대표이사 결사 반대 운동

은 광주형일자리 사업 성공을 바라는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광주시가 법인 등기를 강행한 이후라도 반대입장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박 시장 본인도 주변에 "이용섭 광주시장이 강권해서 떠맡은 자리로(대표이사) 내가 왜 말년에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하느냐"는 취지로 언급하면서 이 시장에 대한 불만 표시와 함께 대표이사 직무에 대한 의지를 거둬들이고 있다는 전언도 나오고 있다.

현대차 출신 박광식 이사의 경우는 노동계를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팽배하다. 지역 노동계 한 인사는 "박광식 이사는 현대차 근무 당시 대관업무(국회 및 정부 대응 업무)를 주로 해온 인물로 현대차 출신이지만 차(車)에 대해서는 박광태 대표와 마찬가지로 비전문가"라며 "노조를 적대시해온 인물로 사업 운영 방식과 노무 문제로 사사건건 마찰이 빚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형호 기자 khh@

## 현대차 무리한 요구 접자...노동계, 광주노사민정 협의회 막판 참여

"근로자 평균 임금 문제, 노동이사제 도입 불가 등 노동계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으로 된 안건이 현대자동차 측 요구로 제시됐다."

광주 노동계 한 인사는 지난 18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예정이었던 '광주시 노사민정 협의회' 무산 원인으로 현대자동차 측의 무리한 요구를 지목했다.

노동계 인사는 그러면서 "19일 개최된 노사민정 협의회에 운종해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 등 노동계 인사 3인이 막판 참여하게 된 것은 노동계 반발을 꺾지 못한 현대차가 스스로 요구안을 거둬들였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노사상생형 광주형일자리 자동차공장 합작법인 (주)광주글로벌모터스 2대 주주인 현대자동차 측이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에 의결해달라고 요구했던 원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

광주 노동계에 따르면 애초 안건에는 ▲근로자 임금 책정 기준 방침 재확인 ▲노동이사제 도입 논의 및 요구 불가 ▲노사민정협의회 산하 실무위원회 신설 등이 담겼다고 한다.

지역 노동계는 이에 대해 "경력·신입 등 근로자 평균 임금문제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다. 또한 노사민

정협의회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꾸려 이를 중심으로 주요 사항을 결정하겠다는 것은 노사민정협의회를 무력화시켜 현대차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동이사제의 경우 노사상생형 일자리 정신을 생각한다면 노동이사제 도입 논의조차 없었다는 확약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올 1월 초 광주시-현대차 투자협약서를 기본으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됐다. 오늘 최종 의결, 발표된 것이 공식 입장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

## 한미정상 23일 뉴욕서 회담...비핵화·한미동맹 협의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정상회담을 한다고 청와대가 19일 밝혔다. 두 정상 간 회담은 이번이 9번째로, 지난 6월 서울 회담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차 3박 5일 일정으로 오는 22일 뉴욕으로 향한다. 최중건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협의한다"며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과 역대 현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뉴욕 한미정상회담은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7개월 가까이 교착상태를 보이는 북

미협상이 조만간 재개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열려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북미 간 비핵화 협상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한 자리로 삼는다는 구상이다. 미국의 대북 제재 지속으로 차단된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 간 협력 사업이 솜통을 튼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도 회담의 주요 포인트다.

아울러 이번 회담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선언으로 인한 한미동맹 균열 우려를 불식하면서 동맹의 견고함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각종 현안을 해결해 가는 계기가 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예정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 (충효동 665-29)

**한일솔라에너지**

1566-9988

**돈보기보다 노안수술이 효자**

\* 노안수술 시 돈보기 없이 J1, J2 를 읽을 수 있습니다.

노안수술 후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

● 신세계안과 옛.밝은광주안과